

지역연구 활동 각별한 '주목'

정읍학연구회, 정읍 풍류문화 다룬 '정읍학' 5호 간행
정읍의 술·민중종교·선비문화·풍류문화 집중 다뤄

지난 2014년 정읍학연구회(회장 김익두 전북대 교수)가 창간한 '정읍학' 5호가 간행되었다. 해마다 1권씩의 연간 저널 학술지로 간행되어온 이 학술지는 이번에 5호의 간행을 맞게 되었다.

1호(창간호)에서는 정읍의 사상, 예술, 경제, 정치-사회, 역사 등 정읍문화 전반에 걸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들을 다루었고, 2호에서는 정읍의 '풍류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21세기 동아시아 중심의 문화운동의 방향을 '풍류'로 가능해 보았다.

3호에서는 '문화복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풍류문화의 주변으로 논의를 확대해서, 정읍의 풍수, 풍류방, 증산사상, 세시풍속 및 마을문화 복원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4호에서는 '차기운 집단에서 파산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정읍 공동체 문화의 전통적 정책 중의 하나인 정읍향약을 중심으로 정읍의 마을굿 등을 비롯한 공동체 문화의 전통을 논·조명했다.

이번 5호에서는 다시 정읍의 풍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읍의 술, 민중종교, 선비문화, 풍류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정읍의 풍류문화를 다루기 위한 기초 논의로서 '정읍 풍류문화의 전반적인 기초' (김익두)를 담았다. 또한 풍류문화의 물질적 주요 기초인 술-풍류문화를 정읍지역 맥걸리 를 사례로 다루면서 정읍지역 맥걸리의 역사,

특성, 미래 등을 매우 현장감 있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지역 맥걸리의 가치 제고와 맥 걸리 산업 진흥 방안'(김재영), 정읍이 낳은 21세기 사상 증산사상의 역사-종교적 전개 과정의 한 중요한 사례로 정읍 태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보천교 이후의 '무극대도'의 독립운동과 새로운 미래국가 건설운동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일제강점기 태인 무극대도의 민족운동 연구'(안후상), 정읍의 선비 풍류문화 연구의 한 사례로 그동안 묻혀 있던 정읍 출신 선비 유학자 성당 박인규의 삶과 전주에서의 여러 활동, 그리고 그런 활동과 관련된 전주 지역의 여러 관련 유적들을 현지조사에 의해 제시하는 '새로 찾은 스토리: 정읍 선비 성당(誠堂) 박인규(朴仁圭)와 전주 구강재(龜岡齋)(이종근), 역시 정읍 출신 풍류문화의 중요한 사례로 호남 유학/성리학의 비조인 일제 이항의 수제자 의병장 건재 김천일 선생의 삶과 그 역사적 의미를 그의 삶 전체 과정의 구체적인 추적을 통해서 조명하는 '일제 이항의 수제자 건재 김천일의 삶과 역사적 의미'(허정주), 정읍지역 풍류문화 중에서 문학 분야를 다룬 논의로서 정읍지역에 전승되어오는 고전문학 분야의 여러 풍류문학 텍스트들을 조사·정리·분석하여, 정읍 풍류문학의 전통과 그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읍지역 풍류문학 연구'(이용찬) 등이 실려 있다.



끝으로 부록에는 상징-인류학의 개척자인 고 빅터 터너(Victor Turner) 교수의 유명한 논문 '신화, 제의, 그리고 드라마 속에 공연의 보편 개념들이 존재하는가?' (김익두 옮김)라는 글이 실려 있어 지역의 공연문화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학술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한 세대가 가까워오는 지금도 우리 지역의 지자체 별로 그 지역을 연구하는 전문 학술단체가 거의 없는 전국의 현실에서, 정읍학연구회의 이러한 지역연구 활동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재 재질별 분석연구 성과, 책 3권으로 집대성... 전문적인 정보 수록

문화재 재질별 분석연구 성과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는 '문화재 과학적 분석-재질별 연구 사례', '몽골의 옛사람 뼈 II', '보존과학연구 제39집' 등 3종이다.

'문화재 과학적 분석-재질별 연구 사례'는 무기질·유기질 문화재 분석에 대한 기본정보와 사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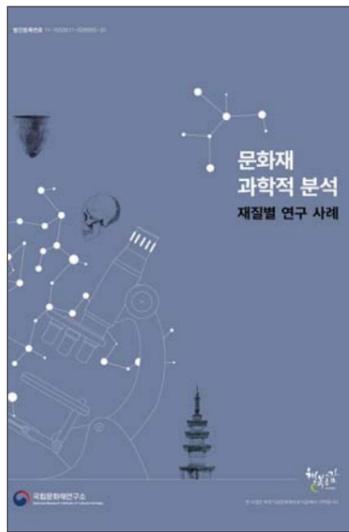
토기, 도자기, 안료, 유리, 벽화, 석조, 철기, 청동기 등 무기질로 이뤄진 문화재의 분석연구 결과와 옛사람 뼈나 유기질분류, 목재, 지류, 직물처럼 유기질로 이뤄진 문화재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존과학연구실이 보유한 주요 연구장비 등 분석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도 수록했다.

'몽골의 옛사람 뼈 II'는 연구소와 몽골 과학 아카데미 역사고고학연구소가 공동연구한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연차보고서다. 몽골 호브스골 아이막에서 발견한 옛사람 뼈 유전자 분석, 식생활 연구, 몽골 북부 토착 유목민 유전자 분석 결과를 담았다.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적 형성과 계통유전학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존과학연구 제39집'은 문화재 보존과학 학술연구 자료에 대한 기를 마련, 보존과학 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해 1980년부터 발간하는 학술지다. 금속, 도자기, 토기, 석조 등 무기질 보존·복원, 목재, 지류, 섬유류 등 유기물 보존·복원, 문화재 분석, 문화재 환경 등 분야별로 편집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거친 논문을 수록했다. 이번 제39집에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과거 복원 재료 및 방법에 대한 현황 조사', '황색안료 석회의 특성과 채색문화재에 적용연구', '북한산성 행궁지 내 고고학적 토양의 분변성 잔존물 분석' 등 논문 8편을 수록했다.

문화재청 복원기금으로 발간했다. 원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웹사이트(자료마당-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보존·복원-원문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시스

'설 연휴 생생 교통정보 전해드려요'

TBN 전북교통방송, 내달 1-6일 '설 명절 특별방송'

TBN 전주교통방송이 '설 명절 교통특별방송'을 진행한다.

TBN 전북교통방송은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객의 안전 운행을 위해 내일부터 6일까지 교통특별방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명절 기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다.

교통방송은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 등을 중심으로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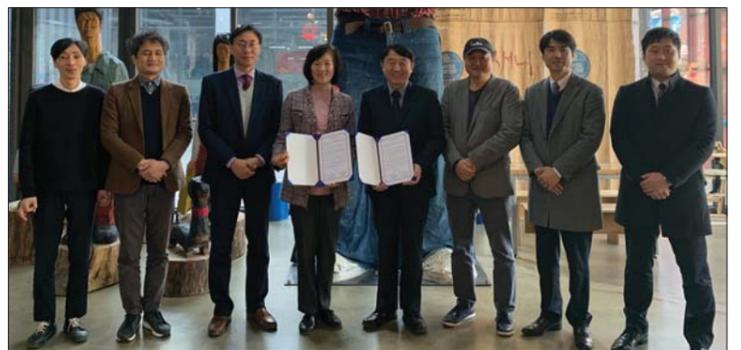
이를 위해 도내 주요 도로와 공원묘지 등에 전담 중계차와 방송 통신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정체 현황과 예상 소요시간, 우회도로 안내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거리 운행에 맞춰 각 프로그램마다 교통안전 콘텐츠를 만들어 청취자들에게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와 영상 긴급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에 맞춰 'TBN 네트워크 권역 연결' 프로그램을 편성해 전북과 전남, 제주 등 호남 전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색과 권역 교통정보 등을 알리는 특별방송이 진행된다.

이성원 전북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황을 전할 수 있도록 교통특별방송을 마련했다"며 "전북교통방송과 함께 고향을 찾는 귀성·귀경객이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가 전주문화재단과 '시각 문화 다양성 확대 및 시민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국제영화제 - 전주문화재단, 시각 문화 다양성 확대 '맞손'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는 (재)전주문화재단과 '시각 문화 다양성 확대 및 시민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갤러리 전시 프로그램 '익스팬디드 플러스(Expanded plus)'를 오는 5월 2일 개막하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동시대 영화에서 벗어나지는 시각 문화 장르의 융·복합을 증진하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소개해 온 '익스팬디드 시네마(Expanded Cinema)' 색션이 갤러리 설치로 확장된 버전이다.

필름과 비디오, 미디어아트, 회화, 건축, 음악 등 시각각 예술의 전 방위적인 지도를 그리는 한편 전통적인 극장 상영의 형식을 탈피하고 갤러리 전시를 병행해 영화제가 추구하

는 매체 확장의 지형을 큐레이팅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제임스 베닝, 벤 리버스, 케빈 제름 에버슨, 조디 맥, 헬레나 비트만 등의 거장과 신예 작가가 조화를 이룬 탄탄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제의 전통으로 자리한 '100 필름 100 포스터' 전시도 팔복예술공장과 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제에 초청된 100편의 영화에 대해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해석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 전시하는 프로젝트로 상영 포스터의 규칙과 관습에 구애받지 않은 창조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팔복예술공장은 실험적 예술창작 문화플랫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주시와 재단이 재탄생시킨 도시 재생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곳에는 전시장, 창작스튜디오, 예술 교육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